해외 ICT 표준화 동향

2017. 11.

(2017.9.26.~2017.11.2.)

*** 게시물 보기**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 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목 차

Ⅰ. 국제 표준화 기구

▷ G7 ICT장관회의, 선언문에서 국제표준 중요성 확인
▷ ISO,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표준(ISO/IEC 27007) 개정
▷ ITU, ICT의 사회영향력 관련 발간물 출시

Ⅱ. 지역 표준화 기구

1. 미국
▷ TIA, 안테나 및 풍력터빈 지지구조 표준 개정 발표

2. 유럽
▷ ETSI, NFV 주요 규격 완료
▷ EC, 산업 조화표준 사용을 위한 플랜 발표
▷ ETSI, CCC MirrorLink 규격 채택
▷ ETSI,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규격그룹 신설
▷ ETSI, IoT Week 2017 개최

Ⅲ. 기타 사실 표준화 기구

▷ 3FPP·VR-IF, VR 생태계 및 표준 워크숍 개최
▷ OASIS, 정적분석결과 상호운용성 표준 SARIF 합의
▷ IEEE, 3DBP 표준 프로젝트 승인
▷ IEEE, 1Gb/s 이상 자동차 이더넷 표준개발 프로젝트 승인

Ⅳ. 전문가 활동

Ⅰ. 국제 표준화 기구

■ G7 ICT 장관회의, 선언문에서 국제표준 중요성 확인

2017년 9월 25일 ~ 26일, 이탈리아 북서부 토리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표준에 대한 국제적 협력 촉진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standard)' 문구를 선언문에 포함하였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서방 선진 7개국 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조정 및 논의와 협력, 단결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정상회담으로, 이번 회담에서는 차세대 혁명시대에서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디지털 인프라 및 인공지능, 기업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이버보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G7은 21세기 글로벌 생산 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혁신, 신기술, 신소재 및 새로운 프로세스인 차세대 생산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포괄적, 개방적이며 안전한 차세대 생산혁명(Making the next production revolution inclusive, open and secure)'[1]이라는 선언문을 개발하였다. 이번 선언문에 '표준에 대한 국제적 협력 촉진'(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standards)' 문구를 포함하여 사회적,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 요구에 의한 표준화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다음은 ICT의 혁신과 경쟁력을 위해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선언문의 일부이다.

표준에 대한 국제적 협력 촉진(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standard)

40.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합의 기반 및 시장 주도 접근 방식으로 개발된 업계 주도의 자발적 국제 기술 표준은 디지털로 연결된 세상으로의 진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는 ICT사용에 있어 경제적 성장, 혁신, 생산성, 경쟁력 및 상호운용성, 신뢰 및 보안을 증진하는 수단이다. 표준은 WTO TBT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 및 TBT 위원회의 국제표준 개발 원칙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41. 디지털화를 통한 글로벌 연결성 및 경제적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국제표준은 국가 또는 지역 표준보다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 국제표준이 지역 또는 국가 표준으로 변환되거나 채택될 경우, 이러한 전환 또는 채택은 국제표준 개발 기구의 절차에 따르고, 그에 따른 지역 또는 국가 표준은 국제표준과 충돌이 없어야 한다. 다양한 표준화 기구 간의 노력의 중복을 막기 위해 이들 기구들 사이에 투명성, 소통 및 교환은 장려되고, TBT 위원회의 국제표준 개발 원칙을 따라야 한다.

42. 표준화는 사회 및 경제 목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장요구에 의해 추진되는 노력이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설정 업무는 개방되어야 한다. 산업주도의 표준 기구들은 기술적 표준을 개발하고 글로벌 ICT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며, 각국 정부는 표준 생태계를 구성하는 많은 플레이어들 간의 협력과 협조를 토대로 하는 표준 개발을 위한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 솔루션이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43. 그러므로 우리는 표준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절차 및 포럼에서 모든 관련 그룹 및 이해관계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우수 관행을 공유할 것을 지지한다. 표준화에서의 혁신을 이끌 주체로서의 중소기업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표준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되어야하며, 이들의 참여에 대한 장애요소는 가능한 감소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이 글로벌 표준 에코시스템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 요구되며, 또한 표준단체가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명확한 규칙 등 개방절차를 마련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선언문 원문 : http://www.g7italy.it/sites/default/files/documents/G7_ICT_and_Industruy_Ministers%27_Declaration_2017_0.pdf

☞ http://www.g7italy.it/en/news/the-ict-industry-ministerial-meeting-has-come-to-an-end
*참고: https://www.ansi.org/news_publications/news_story?menuid=7&articleid=f819a7ef-9386-4d1e-bd49-6afff728746c8&source=whatsnew101617

■ ISO, 정보보호경영시스템 표준(ISO/IEC 27007) 개정

2017년 10월 17일, ISO는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감사에 대한 ISO/IEC 27007[1] 표준 개정을 발표하였다. 이번 표준은 기업이 점점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함에 따라 정보보호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ISMS 감사 프로그램 관리, 수행 및 ISMS 감사원 역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http://www.iso.org/news/ref2232.html

■ ITU, ICT의 사회영향력 관련 발간물 출시

2017년 10월 11일, ITU는 'ICT 주도 경제성장, 혁신 및 일자리 창출(ICT-centric economic growth, innovation and job creation)' 이라는 제목의 발간물을 출시하였다. 이 발간물은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ICT에서의 진보를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과 실용적 전략을 제공하며, 혁신, 정치, 교육,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분야에서의 ICT가 제공하는 기회를 다루고 있다.

☞ http://www.itu.int/en/mediacentre/Pages/2017-CM19.aspx

1) 원문 미리보기: https://www.iso.org/obp/ui/#iso:std:iso-iec:27007:ed-2:v1:en

Ⅱ. 지역 표준화 기구

1. 미국

■ TIA, 안테나 및 풍력터빈 지지구조 표준 개정 발표

2017년 10월 26일, TIA의 통신 및 소형 풍력 터빈 지지구조 TR-14 공학위원회는 안테나 및 소형 풍력 터빈을 위한 지지구조에 대한 ANSI/TIA-222 표준 H개정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이번 H개정은 2006년에 처음 발표된 TIA-222의 이전 버전인 G 버전을 토대로 조항을 강화하고 표준을 최신으로 유지하며 업계 요구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새로 개정된 표준에는 업계의 최소 하중 요구사항과 설계기준에 관한 중요 지침을 제공하는 업데이트를 담고 있다. 또한 새로운 구조적 설계 및 제작 요구사항, 기존 안테나의 지지구조, 안테나, 소형풍력터빈 지지구조, 마운팅 시스템 부속물, 구조부품, 절연체의 변형을 다룬다. TIA-222-H 표준에 포함된 변경사항들은 미국의 최신 건설표준인 AISC 360과 일치하는 설계조항에 따라 미국토목학회표준 ASCE-7의 최신 버전인 최대풍속사용, 지진 하중에 대한 고려사항의 업데이트를 포함한다. 개정표준에는 새로운 구조 또는 기존 구조의 변형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여 기타 유용한 정보를 포함한 새 부속서 또한 추가되었다. 그리고 TIA는 이번 개정된 표준을 국제건축코드 IBC 2018(International Building Code)[1]에 포함하고 검토하기 위해 국제코드위원회(ICC, International Code Council)[2]에 제출하였다.

☞ http://www.tiaonline.org/news-media/press-releases/tia-announces-publication-tia-222-h-standard-antennas-and-supporting

1) 국제건축코드(IBC, International Building Code): ICC에 의해 제작된 국제코드 중 하나로, 건축된 환경에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지침을 제공하는 공공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도구. 설계 및 공공 건강과 안전 목표를 달성하는 혁신적 재료 설치를 다룸. <출처: https://www.iccsafe.org/codes-tech-support/codes/2018-i-codes/ibc/#>

2) 국제코드위원회(ICC, International Code Council): 64000개 이상의 회원사가 포함 된 회원사 중심의 협회로, 설계, 건축, 준수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코드 및 표준 개발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시공을 제공함. ICC에서 발간한 국제 코드는 사람들이 집, 학교 및 직장에서의 최소한의 안전지침을 제공함. 건축코드(Building Code)는 공공 안전에 이익이 되고 지역에 상관없이 산업의 요구사항을 지원함. <출처: https://www.iccsafe.org/about-icc/overview/about-international-code-council/>

2. 유럽

■ ETSI, NFV 주요 규격 완료

2017년 10월 3일, ETSI의 NFV 산업규격그룹(NFV ISG,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Industry Specification Group)은 NFV의 주요 규격을 완료하였다. ETSI는 지속적인 NFV 활동으로 통신 네트워크 가상화에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NFV기술의 세계적 채택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추가단계를 수행하게 되었다.

NFV ISG는 지난 3개월 동안 6개의 새로운 NFV 규격을 발표하였으며, 이 규격은 NFV 패키지 구조, 패킷흐름라우팅 동적 최적화 및 하이퍼바이저[1] 도메인 요구사항에 따른 리소스 관리 가속화를 다루고, 총 18개의 다른 작업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 최신 6개의 규격 중 2가지인 ETSI GS NFV-SOL 002[2]와 ETSI GS NFV-SOL 003[3]은 NFV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REST API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ETSI GS NFV-SOL 004[4] 역시 완료되었으며, VNF(Virtualization Network Function) 패키지의 형식과 구조를 규격화 하며, 클라우드 기반 웹 서비스, 구성요소, 관계 및 관리 절차를 설명하는 오아시스 표준 언어인 OASIS TOSCA(Topology and Orchestration Specification for Cloud Applications) 클라우드 서비스 아카이브(CSAR, Cloud Service Archive) 형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규격에 대한 작업은 광범위한 여러 공급업체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하여 통합된 API 사양을 정의하는 것이며, 산업이 직면한 수많은 통합과제를 완전히 해결하며 NFV의 출시를 앞당긴다.

NFV ISG는 NFV 운영을 위한 사양 및 지침 제공 목표와 함께 세 번째 릴리즈(NFV Release 3) 개발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NFV 환경에 대한 강화된 보안 및 5G 배포를 위한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NFV를 적용하는 것과 같은 미래 지향적 주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 http://www.etsi.org/news-events/news/1220-2017-10-news-etsi-adds-extra-dimensions-to-virtualization-of-communication-networks-with-continued-nfv-specification-activity

1) 하이퍼바이저(hypervisor): 프로세서나 메모리와 같은 다양한 컴퓨터 자원에 서로 다른 각종 운영 체계(OS)의 접근 방법을 통제하는 얇은 계층의 소프트웨어. 다수의 OS를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로 중앙 처리 장치(CPU)와 OS 사이에 일종의 중간웨어로 사용되며, 하나의 컴퓨터에서 서로 다른 OS를 사용하는 가상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가상화 엔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용어사전, http://terms.tta.or.kr/main.do>
2) 원문: http://www.etsi.org/deliver/etsi_gs/NFV-SOL/001_099/002/02.03.01_60/gs_NFV-SOL002v020301p.pdf
3) 원문: http://www.etsi.org/deliver/etsi_gs/NFV-SOL/001_099/003/02.03.01_60/gs_NFV-SOL003v020301p.pdf
4) 원문: http://www.etsi.org/deliver/etsi_gs/NFV-SOL/001_099/004/02.03.01_60/gs_nfv-sol004v020301p.pdf

■ EC, 산업조화표준 플랜 발표

2017년 9월 9일, 유럽위원회와 유럽 표준화기구 ESO는 가장 영향력 있는 분야에서 인용되지 않는 표준의 수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과 개발과정에서 조화표준[1]의 입법 준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계획 이행 작업을 발표하였다. EC는 3개의 유럽 표준화기구 CEN, CENELEC, ETSI와 협력하여 인용되지 않는 조화표준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솔루션과, 미래를 위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절차 제공을 목표로 하는 실행 계획을 개발하였다.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조화표준에 대한 인용이 적시에 되는 것은 표준 시스템의 최대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중요하나, 최근 조화표준에 대한 인용이 줄어들고 있다. 표준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럽 산업의 강력한 경쟁적 위치에 기여하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모든 산업과 중소기업 및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유럽 조화 표준을 준수하여 제조된 제품은 해당 연합조화 법규의 필수 요구사항과 일치 여부에 의해 이익을 얻고,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며 EU의 단일 시장의 강점이다.

표준화 절차를 위한 데이터 및 IT지원 도구 기능 개선을 위한 단계 또한 취해질 예정이다. EU는 표준이 핵심인 포다 깊고 공정한 단일 시장을 통해 시민가 기업을 위한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강력히 헌신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공동평가 및 조화표준 인용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며, 다음은 이행 계획의 일부이다.

인용되지 않은 조화표준 감소를 위한 구조적 솔루션
(Structural solutions to decrease the stock of non-cited harmonised standards)

• 단기적 계획(Short-term)
1. 최근 인용된 적 없는 조화표준 진행
2. 새로운 접근 컨설턴트(NAC, New Approach Consultants)로부터의 지원 향상
   - NAC의 주요 규칙은 조화표준이 개발 프로세스동안 표준화 및 연합 법규와 일치하는 요구사항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임

• 중기적 계획(Medium-term)
3. 조화표준에 대한 공동평가 및 인용절차에 대한 공통된 이해 개발
4. 조화표준 데이터베이스 현대화

☞ http://ec.europa.eu/growth/content/european-commission-launches-action-plan-improve-publication-harmonised-standards-industry_en

1) 조화표준(Harmonised standards) 원문: http://ec.europa.eu/growth/single-market/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_en

■ ETSI, CCC MirrorLink 규격 채택

2017년 10월 18일, ETSI는 MirrorLink® 규격을 ETSI 기술 규격인 TS 103 544 시리즈로 발표하였다. MirrorLink는 유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In-Vehicle Infotainment)[1] 시스템을 일체화하는 기술로, 국제단체인 자동차 연결 컨소시엄(CCC, Car Connectivity Consortium)에서 제정된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연결하는 개방형 표준이다. 이번 MirrorLink 규격은 산업체의 규격이 ETSI의 기술규격 인지도와 가시성 향상 이점을 갖는 ETSI 공개규격절차(PAS, Public Available Specification)를 통해 발표되었다.

CCC는 자동차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1차 공급 업체, 전화 제조업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포함한 업계의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MirrorLink를 개발하였다. MirrorLink는 스마트 기기에 IVI 시스템에서의 애플리케이션 제공을 위한 견고하고 간소화된 무선 및 유선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이미 수억대의 스마트폰과 수백만 대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다. 소비자는 업계지침을 준수하며 운전자의 주의를 최소화하는 음성, 터치 및 핸들을 사용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다.

* CCC(Car Connectivity Consortium): 스마트폰과 차량 내 연결 솔루션 및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해 산업간 협력에 전념하며, 75개 이상의 회원사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CCC의 서비스에는 MirrorLink® 이외에도 디지털 키 및 차량 데이터를 포함한다. <출처: https://carconnectivity.org/>

☞ http://www.etsi.org/news-events/news/1226-2017-10-news-etsi-adopts-car-connectivity-consortium-s-mirrorlink-technical-specification

■ ETSI,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규격그룹 신설

2017년 11월 2일, ETSI는 스마트 도시에 '시티 디지털 프로파일 산업규격그룹(CDP ISG, City Digital Profile Industry Specification Group)' 신설을 발표하였다. 이번 ISG는 통합 시민서비스 제공을 가속화하고 공급업체의 표준화된 솔루션을 활용할 도시 리더를 위한 기술 로드맵 제공을 목표로 한다.

새로 신설된 CDP ISG는 도시가 확장 및 구성 가능하며, 다른 도시와 공급자와 유사한

1)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IN-Vehicle Infortainment): 차 안에 설치하는 여러 장비들이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포테인먼트는 정보와 재미를 같이 제공하는 것이며 자동차는 내비게이션이 화면으로나 목소리로 길을 알려주고 맛집과 같은 정보 제공과 오락 기능을 갖춘 인포테인먼트 기기로 변신한 것이 예임. 이처럼 자동차에 설치하는 모든 정보기술 기기들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출처: tta정보통신용어사전, www.terms.tta.or.kr>

서비스와 상호운용이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스마트 솔루션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도시 관리자는 필수적 환경 요소와 지속가능한 목표를 중요히 여기고, 전반적 배포 비용을 절감하며 시민들에게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산업규격그룹을 통해서 도시 리더들과 공급자들이 표준을 완벽히 준수하고,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비용 절감적인 시민중심의 시스템에 답하는 협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보존 및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다른 주요 문제들 또한 oneM2M, ETSI 파트너십 프로젝트 및 ETSI 사이버 기술위원회와 같은 그룹과 협력하여 고려될 것이다. CDP ISG 도시 애플리케이션 초기 모델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 보건 및 장애수당, 주택수당 및 임대료 지불, 주거환경과 같은 사회복지
- 건물 관리 및 상호 연결된 주택
- 도시 조명
- 수도 및 폐기물 관리와 에너지
- 교통 및 이동성
- 오염 및 자원 최적화와 같은 환경문제

이번 산업규격그룹에 대한 킥오프 회의는 2017년 11월 20일 ~ 21일에 ETSI 본부에서 개최되어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고 향후 업무 및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다. 또한 ETSI는 11월 14일 ~ 16일 까지 열리는 스마트 시티 엑스포의 연사이자 이번 ISG CDP 개념을 소개하는 메인이벤트와 함께 전용 세션을 조직할 예정이다.

☞ http://www.etsi.org/news-events/news/1237-2017-11-news-etsi-creates-city-digital-profile-group-on-smart-cities

■ ETSI, IoT Week 2017 개최

2017년 10월 23일 ~ 26일, M2M 워크숍 시리즈의 연장인 ETSI는 IoT Week 2017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표준기반 기술의 힘과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IoT 솔루션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며, IoT에 사용되는 모든 다른 기술을 합치는 표준에 의한 의미론적 상호운용성고 보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 http://www.etsi.org/etsi-iot-week-2017

Ⅱ. 기타 사실 표준화 기구

■ 3GPP·VR-IF, VR 생태계 및 표준 워크숍 개최

2017년 12월 4일 ~ 6일, 3GPP와 가상현실 산업포럼(VR-IF, Virtual Realization Industry Forum)은 미국 산타클라라(Santa Clara)에서 VR 산업의 3GPP 요구사항 촉진 방법에 관한 'VR 생태계 및 표준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워크숍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VR 서비스에 대한 운영자 및 서비스 제공 업체의 기술 요구사항 수집
- 360도 비디오 생산 형식의 제약조건과 배포 시 문제점 고려
- 다양한 VR 관련 표준화 노력 보고 및 조화 추구

☞ http://www.3gpp.org/news-events/3gpp-news/1903-virtual-reality-ws

■ OASIS, 정적분석결과 상호운용성 표준 SARIF 합의

2017년 10월 12일, OASIS는 소프트웨어 결함 및 취약성 탐지를 위한 정적 분석결과 교환 방식 (SARIF, Static Analysis Results Interchange Format)[1]상호운용성 표준 정의를 위한 합의를 진행하였다. SARIF는 정적 분석 도구의 출력에 대한 표준 형식을 정의하는 것으로, 새로운 OASIS의 SARIF 기술위원회는 산업 전반에 걸친 도구로 분석 가능한 데이터 포맷에 대한 합의를 위해 CA, Cryptsoft, 그래마테크, HPE, 마이크로소프트, 팬텀, 미국 국토안전부, NIST 등과 같은 주요 소프트웨어 회사, 사이버 보안 공급자, 정부,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전문가, 프로그래머 및 컨설턴트들과 협업하고 있다.

SARIF의 목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다양한 툴로부터 데이터를 모아 그들의 프로그램 품질 및 보안을 더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SARIF를 사용하면 엔지니어들은 보안 및 접근 표준 준수에 있어 넓은 범위의 잠재적 결함 및 취약성 접근이 쉬워지게 된다. 또한, 머신러닝과 같은 고급 분석기술은 더 많은 데이터 인풋이 필요하고, 많은 소스에서 코드 품질 데이터를 병합하는 비용을 줄이는 SARIF와 같은 형식이 필요하다. SARIF는 코드가 언어와 운영체제에 걸쳐있는 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여러 조직은 시스템의 품질과 보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며, SARIF를 사용하면 현재 사용가능한 정적 분석 솔루션보다 통합되고 고유한 통찰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된다. 정적 분석에 관련된 사람들은 상호운용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SARIF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1) SARIF 웹페이지: https://sarifweb.azurewebsites.net/

☞ https://www.oasis-open.org/news/pr/industry-leaders-collaborate-to-define-sarif-interoperability-standard-for-detecting-softwar
*추가: https://rawgit.com/sarif-standard/sarif-spec/master/Static%20Analysis%20Results%20Interchange%20Format%20(SARIF).html

■ IEEE, 3DBP 표준 프로젝트 승인

2017년 10월 10일, IEEE-SA는 3D 바디 프로세싱 프로젝트 (IEEE 3141™ - Standard for 3D Body Processing)를 승인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새로운 표준 및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인큐베이팅 하도록 돕는 IEEE-SA의 IC(Industry Connection) 프로그램을 통해 시작되었다. 프로젝트는 소매업, 의료, 헬스, 스포츠 산업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공급자를 위한 통일된 수단을 확립하는 3DBP 기술 표준화를 통해 확장가능하며 견고한 몰입형 경험을 설계 및 구현할 예정이다.

☞ http://standards.ieee.org/news/2017/ieee_approves_standards_project_addressing_3d_body_processing.html

■ IEEE, 1Gb/s 이상 자동차 이더넷 표준 개정 프로젝트 승인

2017년 10월 12일, IEEE는 P802.3chTM - 1Gb/s 이상 자동차 이더넷 물리계층 사양 및 관리 파라미터 표준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다. 이번 표준 개정 프로젝트를 통해 IEEE 802.3ch 자동차 이더넷 군에 최대 10Gb/s의 속도를 가져다 줄 것이며, 무인주행 또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및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와 같은 기술에서의 빠른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다.

☞ http://standards.ieee.org/news/2017/ieee_p802.3ch.html

Ⅳ. 전문가 활동

구분	내용
국제회의명	IEEE P3079 Meeting (Session #3)
기간/장소	2017.10.31. ~ 2017.11.4. / 중국 베이징
주요이슈	• HMD 기반의 가상현실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Motion Sickness를 줄이기 위한 휴먼팩터, 콘텐츠,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렌즈 및 센서에 대한 각각의 기술동향 공유 • 표준개발 일정 확정
대응전략	• IEEE P3079는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진행하고 있는 WG으로, 해당 표준에 대한 추진은 우리나라의 실감형 혼합현실 기술포럼에서 도출된 표준안들이 대부분 반영되고 있음

구분	내용
국제회의명	November 2017 IEEE 802 LMSC Plenary Session
기간/장소	2017.11.6. ~ 2017.11.9. / 미국 올랜도
주요이슈	• IEEE 802.15 TG8은 근접단말 간 social networking을 지원하는 PAC용 PHY와 MAC을 IEEE 802.15.8로 개발 중 • IEEE 802.15 TG12는 상위계층에서 WiFi나 이더넷처럼 IEEE 802.15.4 PHY/MAC을 사용할 수 있도록 CULI(consolidated upper layer interface)표준을 개발 중
대응전략	• IEEE 802.15 TG8 표준 채택을 위해 ETRI가 제안한 PHY에 적합한 MAC feature를 통합한 표준 초안을 제안, RevCom 초안에 채택, NICT측에 전략적으로 대응 중 • IEEE 802.15 TG12에 ETRI에서 개발한 IEEE 802.15.4e DSME MAC을 지원할 수 있는 LLC feature를 표준으로 채택시키기 위해 표준 초기부터 구조설계, primitive 제안 등 전략적으로 추진 중

구분	내용
국제회의명	ITU-T SG3RG-AO 제 1차 회의
기간/장소	2017.10.24. ~ 2017.10.27. / 대한민국 서울
주요이슈	• OTT, 모바일금융서비스, 빅데이터 및 디지털아이덴터티, 국제로밍, 데이터서비스 과금 관련 정책이슈 및 향후 연구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대응전략	• 우리나라는 OTT경제적 파급효과, 모바일금융서비스 소비자보호에 대한 지역 내 합의 도출 및 향후 개최되는 관련 이슈 라포처그룹과 상위 연구그룹인 SG3에 관련 내용의 지역기고서 제출을 주도하였으며, 국내 연구반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예정

구분	내용
국제회의명	ITU-R SG7, 7B, 7C, 7D 회의
기간/장소	2017.10.24. ~ 2017.10.31. / 스위스 제네바
주요이슈	• WP7A, WP7b, WP7C, WP7D 4개의 작업반별로 담당권고, 보고서, 연구의제, 핸드북 등 제/개정안 연구결과 검토 및 승인 • ITU-R 권고, 보고서, 연구의제, CPM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총 71건의문서가 도출 • WP7B의 연구결과는 차기 WP회의에서 최종논의를 거쳐 CPM보고서 초안에 수록될 것으로 예상
대응전략	• 금번 회의에서 도출된 CPM보고서 초안에 대한 ITU-R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입장을 적절히 반영할 예정 • 우주환경센서 운용을 위한 기술/운용특성, 주파수 요구사항 및 업무지정에 대해 효율적 우주환경업무 운용을 위한 신규보고서 개발에 우리나라 운영시스템 정보 추가 등 적극적 의견 반영